

부모교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최근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속가능한 부모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현황, 부모교육의 효과 및 해외사례, 향후 부모교육 방향 및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추진 배경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 부모-자녀 간 대화 단절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학대자 중 부모의 비율이 2014년 81.8% (8,207건), 2015년 79.8%(9,348건)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학대행위자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33.1%, 2015년 33.7%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부모의 역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녀 돌봄 및 양육 관련 지식·경험이 세대 간에 전승되었으나, 핵가족화 및 맞벌이·한부모·조손 가족 증가 등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별도의 부모교육 제공이 필

요하다.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실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남성 19.9%, 여성 39.3%로 낮게 나타났다.¹⁾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 역할, 아동 양육방법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동학대 및 가족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1)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p.51.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중점 지원하여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며,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센터, 보건소, 산부인과 등을 통해 '부모교육 홍보 리플릿'(120만부)과 '초보 아빠수첩'(40만부)을 배포하였고, 복지포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시에 부모교육 영상이나 리플릿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기말시험이나 수능 이후에 예비 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교 교양 강좌에 부모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도 배포하였다. 또한 군 장병 정훈교육시간에 국방일보, 국방TV를 통하여 예비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취약가정 부모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지원과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백화점·마트 내 문화센터에 부모

교육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교육 신청으로 부모교육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가정의 날(5.15)'이 있는 주(週)를 '부모교육주간'으로 지정,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TV·신문광고, 카드뉴스, 무료 협업광고 등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전개하고 있다.

3. 부모교육의 효과

여성가족부는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1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 304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사전·사후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교육을 받은 후 가족 간 대화시간이 증가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분석 결과, 교육 전·후 가족 간 대화시간 및 양육 참여시간의 변화에 대한 항목에서 주중 및 주말에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비율이 교육 후 각각 12.5%p, 1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양육 참여시간도 교육 후 증가해, 주중

〈표 1〉 교육 전·후 가족 간 대화시간의 변화

항목		교육 전	교육 후	변화 폭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	주중	31.5%	44.0%	+ 12.5%p
	주말	45.2%	61.2%	+ 16.0%p

〈표 2〉 교육 전·후 남성의 양육 참여시간의 변화

항목		교육 전	교육 후	변화 폭
양육 참여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비율	주중	18.9%	25.0%	+ 6.1%p
	주말	30.0%	42.5%	+ 12.5%p

〈표 3〉 교육 전·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단위: 점

구분	항목	교육 전	교육 후	변화 폭
자녀와의 친밀도	나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4.06	4.21	+ 0.15
	나는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한다	3.83	3.97	+ 0.14
자녀와의 유대감	아이와 격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4.09	4.13	+ 0.04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느끼는 편이다	3.72	3.8	+ 0.08
양육 스트레스*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3.43	3.29	▽ 0.14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2.67	2.48	▽ 0.19
양육기술과 지식	아이의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행동을 이해한다	3.77	3.87	+ 0.1
	아이 안전 및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3.89	3.98	+ 0.09

주: 양육 스트레스는 변화 폭은 감소(▽)될수록 긍정적인 변화임.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임.

및 주말에 4시간 이상 참여한다는 비율이 각각 6.1%p와 12.5%p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으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항목에서도 관계개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느끼는 편이다’ 등 자녀와의 친밀도와 유대감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모두 교육 후 점수가 향상되었다.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등 스트레스에 대한 항목은 점수가 하락한 반면 양육 기술과 지식 항목의 점수는 향상되었다.

한편, 참가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부모교육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도움(92.8%)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부모교육에 또 참여(93.1%)하겠

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5회 이상 참여한 부모의 향후 부모교육 참여의향은 97.6%에 달해,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교육의 해외 사례

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형태로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모를 위한 ‘보편적 부모교육’, 위험 군에 속하는 가족을 위한 ‘취약 가정 부모교육’으로 구분하여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혼율 급증에 따라 국가적으로 특단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2003년

교육대상	주요 내용
일반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4Baby: '10년 연방정부가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임신부에게 주 3회 임신건강과 영아 양육에 관한 문자 메시지 전송 • 캘리포니아주: 부모교육 출석률에 따라 기저귀 등 아동용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크레딧 제공
취약가정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lthy Family: 청소년 미혼부·모, 저소득 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으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교육,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등 진행 • 이혼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은 36개 주에서 강제로 실시 • 미네소타주: 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과 다양한 환경의 부모를 위한 교육 제공

「가정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지자체에 가정교육 전문가를 임용하여 가정교육센터 설립을 의무화 하였고, 고등·중등 이하의 학교에서 학년마다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별도로 4시간의 가정교육 강좌와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적령기 남녀 대상 가정교육 프로그램(4시간 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 강사도 양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예비부모, 임신·출산기, 자녀 영유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부모교육·상담 등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 생애에 걸친 부모교육 활성화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